

■ S-135 ■

피부 백반증 환자에서 Dapsone에 의해 발생한 중증의 DRESS 증후군을 스테로이드로 치료한 1예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창원병원

*박건태, 심상균, 유길종, 조대현, 정창욱, 오지은

Dapsone은 Sulfone계 유도체로 과거 나병 환자의 치료제로 주로 사용되어졌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피부 질환의 치료에 널리 이용되는 약물로 비교적 흔한 부작용인 전신 쇠약감, 두통, 빈혈, methemoglobin 혈증과 매우 드물게 고열, 박탈성 피부염, 간염, 임파절 비대, 용혈성 빈혈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일종의 약물 과민 증후군인 dapsone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Dapsone 증후군에 호산구 증가증이 동반되면서 전신 장기의 침범이 나타나는 치명적인 과민반응의 경우를 DRESS (drug rash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 증후군이라 하는데 약물 투여 4~6주 사이에 잘 발생한다. 저자들은 39세의 남자로 피부 백반증을 치료하기 위해 4주 동안에 dapsone 50~100 mg을 투여 후 고열, 피부 발진, 황달, 빈혈, 호산구 증가증으로 입원하여 중증의 간염과 급성 신부전을 동반한 DRESS 증후군을 경험하였다.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고 2주만에 완전히 회복하여 퇴원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 S-136 ■

자가면역간염과 동반된 경피증 1예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내과

*심소연, 황인검, 라지은, 서봉수, 이지경

서론: 결체조직 질환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에 동반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피증에 원발성 담즙 성 간경변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간혹 보고되고 있으나 자가 면역 간염과 결체조직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저자들은 경피증에 동반된 자가 면역 간염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증례:** 57세 여자환자가 평소 심와 부통증과 찬물에 노출 시 손가락 끝이 시리는 증상 있어오다 내원 3개월 전 시행한 간 기능 검사 이상으로 내원하였다. 음주, 흡연, 약물 복용력 없었으며 이학적 검사에서 모세 혈관 확장증, 가락피부경화증, 레이노현상이 관찰되었다. 내원 당시 AST 50 IU/L, ALT 35 IU/L, r-GTP 143 IU/L, total bilirubin 0.55 mg/dL, ALP 105.0 IU/L이었다. 간염표지자 (HBsAg, HCV Ab, HCV RNA)는 모두 음성이었고 Epstein-Barr Virus Viral capsid antigen (EBV VCA) IgM, cytomegalovirus (CMV) IgM, herpes simplex virus (HSV) IgM 모두 음성이었다. Anti-nuclear antibody (ANA, 1:320) 양성, anticentromere Ab 양성(56, normal limit <10 U/mL)이었으며 antimitochondrial 항체를 음성, IgG는 정상 범위의 상한선에 있었다. 복부초음파에서 거칠은 간표면의 변화로 만성 간염이 의심되었다. 자가 면역성 간염 의심 하에 진단 및 중증도 평가를 위해 간실질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병리 조직에서 문맥로 및 간 실질에 림프형질세포 침윤, 경미한 섬유화가 확인되어 자가 면역 간염 진단을 위한 개정 점수에 16점으로 확정적인 자가 면역 간염으로 진단되었다. 임상 증상과 면역 혈청 검사 결과 CREST 증후군이 동반된 것으로 진단되었다.